



[뉴스] 네이버 매물정보 독점 과징금 10억 02



Economy

코스피	2368.25 (0.00)	코스닥	866.04 (0.00)
금리 (국고채 3년)	0.929 (+0.010)	환율 (원-달러)	1189.60 (+1.30) (4일)

혈세로 원금보장 뉴딜펀드 위험 부담은 결국 국민 몫?

논란의 뉴딜펀드

펀드 심의위원회 연내 마련 정부-금융기관 7조 '모펀드' 은행-국민 13조 '자펀드' 출시 정책자금으로 일부 손실부담 세금으로 손실 메우기 지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부가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상반기 1호 자(子)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자금(후순위 출자)으로 일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을 두고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려 한다며 결국 펀드 위험부담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3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과 심의를 맡을 심의위원회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위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

되는 만큼 뉴딜펀드 투자처를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자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4억원,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이 3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은행과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형식이다. 투자하는 뉴딜사업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모펀드 7조원이 후순위로 출자돼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한다. 뉴딜펀

드 투자처의 안전성에 대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선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했다"며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펀드에 따라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정부가 그린에너지 펀드에 30%의 정책자금(후순위 출자)을 지원키로 하고 1억원을 투입했다면 펀드는 정부 3000만원, 민간 7000만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이 펀드가 -35%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3000만원(-30%)을 우선 손실 부담에 사용하고 500만원(-0.5%) 대한 부분만 민간이 떠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남은 금액 7000만원 중 500만원은 정부가, 6500만원은 투자자가 돌려받게 된다. 결국 정부가 결정한 정책자금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7억원대 마스크 판매대란

'주문받고 잠수' 유명판매자 '일방취소 무책임대처' 티몬 기다리던 소비자 '부글부글'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중 하나인 티몬에서 약 7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마스크 판매 대란'이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판매업자가 싼 가격에 마스크를 내놓고 수만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나 3만명 가량이 제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

배송이 안된 소비자들의 불만은 티몬뿐만 아니라 마스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도배했다. 특히 관련 내용을 인지한 식약처는 판매업자가 티몬에 기재한 서울 논현동과 삼성동 사무실 2곳을 방문,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부실한 판매자와 이를 사전에 거르지 못한 소셜커머스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당한 것이다.

6일 제보자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달 '퓨어블루(PUREBLUE)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 30매를 1만4900원에 판매했다. 한 장당 496원꼴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장당 496원' 저렴한 판매에 5만명 몰려 3만건 배송지연

티몬·식약처 등에 불만 폭주 판매업체 주소 2곳 실체 없어

티몬측, 주문 일괄취소로 대처 적립금 지급했지만 신뢰 흠집

이때문에 관련 주문에는 4만 9000여 명이 몰렸다. 주문액수로만 7억3000만원이 훌쩍 넘는 규모다. 판매업자는 셀럽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

그런데 배송에 통상 2~3일 걸리는 제품이 오지 않자 8월 말부터 티몬과 식약처에 불만사항이 대거 올라오기 시작했다.

식약처의 관련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티몬, 퓨어블루, 셀럽스커뮤니케이션 등을 적시하며 ▲배송 지연 ▲장기미배송 ▲약덕행위 ▲무응답 ▲고의 배송지연 의심 등에 관한 신고 수 천건이 올라왔다.

한 고객은 "관련 제품을 주문했다가 배송이 지연돼 취소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당초 구매자는 5만2000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티몬측에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 마냥 기다리라는 이야기만하고, 판매업자는 연락이 닿질



티몬이 판매해 문제가 된 셀럽스커뮤니케이션의 퓨어블루 마스크.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고객은 티몬 리뷰에 올린 글에서 "21일(8월)까지는 출고된다. 25일까지는 물건 받을꺼다. 28일까지는 출고완료할꺼다. 그러다 9월까지 기다려달라는 등 판매업자와 티몬측의 무책임한 답변이 수차례 문의 과정에서 이어졌다"면서 "결국 나중엔 배송이 늦으니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라는 투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와 기가 막히더라"고 전했다.

티몬측도 고객들의 높아지는 원성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티몬 관계자는 "중간에 취소된 수량, 이미 배송된 수량 등을 제외하면 아직 고객에게 배송되지 않은 물량은 약 2만8000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의 경우 '사기 판매'라기보다는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서 판매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선 특수한 상황으로, 해당 업체와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가장 최선은 관련 제품을 고객분들께 빠르게 배송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대체 제품 배송 등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 정지 등 조치를 해냈고, 고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관련 피해 접수가 봇물을 이루면서 식약처가 현장 조사까지 나갔지만 판매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태풍 대비, 아파트 창문 합판 보강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빠르게 북상 중인 6일 제9호 태풍 '마이삭' 때 피해를 본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태풍에 대비해 깨진 창문을 합판 등으로 보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세 꺾였지만 집단감염 지속

신규 확진자 나흘째 100명대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종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나흘째 1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집단감염이 이뤄지고, 중환자 치료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7명 늘었

다고 밝혔다. 이 중 지역 감염 사례는 152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어 지난 3일 이후 4일째 100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63명, 경기 45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이 117명을 차지했다.

다만, 집단 감염 사례는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BF모바일 텔레마케팅 콜센터에서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집계됐다. 전 일에는 서울 송파구 쿠팡송파2점포와 관련해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162명으로 늘었고,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52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 비율은 22.4%로 여전히 20%를 웃돌고 있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